

화폭에 담은 영암의 빛·바람·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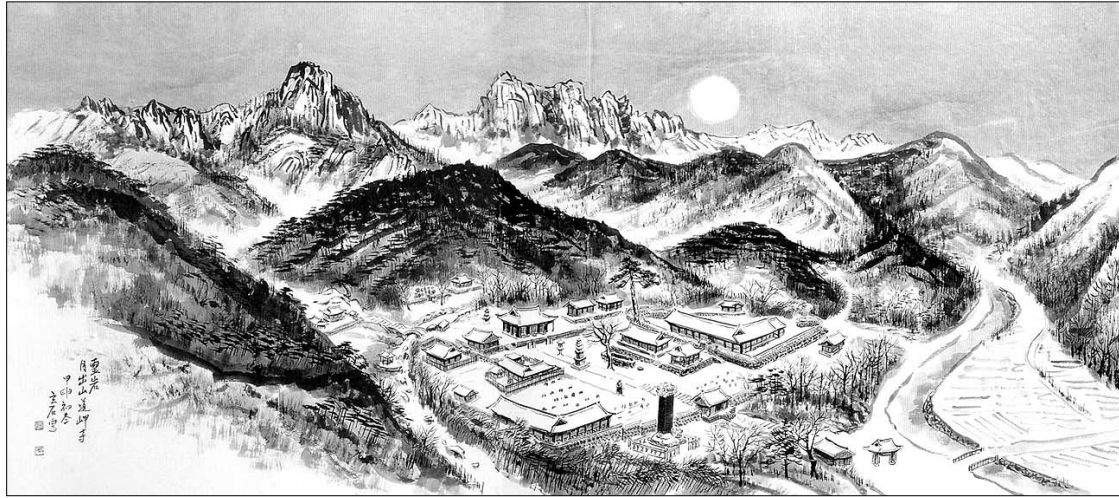
이호신 화백 3년 걸친 그림순례 결실... 12월 5일까지 그림展도 열어



달이 솟는 산마을
이호신 글/그림 | 현암사 | 1만5천원

사진이 넘치는 시대다. 개인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는 사진 자료가 넘쳐나고 가구별 디지털 카메라 보급률은 이미 40%가 넘었다. 하지만 한 마을이 여여어 역사와 풍광, 사람 사는 이야기를 담는데 사진만으로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때문에 이호신 화백은 카메라가 아닌 화첩(畫冊)을 챙겨 '우리마을 그림순례'를 떠났다. 지난 20여년 동안 전국을 답사하며 그린 그림과 글을 묶어 펴낸 <풍경소리에 귀를 쫓고>나 <길에서 쓴 그림일기> 등의 책에서 볼 수



출간 전시회가 끝난 뒤 도갑사 성보박물관에 전시될 이호신 화백의 '월출산 도갑사의 겨울' (270×115cm).

있듯 화가가 그리고자 했던 것은 '이 땅에서 나고 빛어낸 얼굴과 그 흙의 숨결'이다.

<달이 솟는 산마을>에는 지난 3년간 전남 영암에 머무르며 그린 풍광이 펼쳐져 있다. 강우방 교수(이화여대)가 "자연의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맑고 따뜻한 그림 속에 그대로 나타

나 있다"고 평했듯이, 이 화백의 그림은 계절이 몇 번 바뀌는 동안 주민들과 함께 먹고 잠자며 마을을 돌고 산을 오르내리며 그린 '발로 그린 그림'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일까, 마을의 역사를 전하는 대목에선 영암군청과 문화관, 도서관 등을 살살이 뒤져 사료(史料)를 찾아냈을 수고로움도 전해진다.

또한 책에는 마을의 풍광과 함께 마을이 형성된 역사와 풍습 그리고 지금껏 이어져오고 있는 생활모습 등도 꼼꼼히 옮겨져 있다. 수대에 걸쳐 한 마을에 살아온 사람들과 그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준 자연환경은 바로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이다. 꽃이 피거나 눈이 내린 마을 구석구석의 정겨운 풍경

과 고추 모종을 이고 가는 이순 할머니, 작가에게 머물 집을 제공한 동구림리의 문영숙 씨 등 주민들의 모습도 화폭에 자리 잡아 정겨움을 더한다.

월출산과 도갑사의 모습을 담은 그림도 빼놓을 수 없다. 월출산 곳곳에 자리 잡은 마애불의 모습도 따뜻한 수묵으로 다가오고 눈 속에서 흔들리는 풍경(風景), 달이 휘영청 뜬 도갑사의 장관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순례'가 단순히 '풍광'을 있는 그대로 옮기는 작업만은 아니었다. "그림 그리는 이가 배낭 메고 산천과 마을을 떠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감회는 늘 시대와의 불화"라고 말하는 이 화백은 "자본의 논리에 의해 황폐화되어가는 우리의 터전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었다"고 답답한 심정을 털어 놓는다.

"자본의 논리가 행복 추구로 치닫는 마당에 버림받은 농토와 깎이는 산, 미풍양속이 와해되고 만 오늘날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이들이 살아야 할 미래를 염려하고, 나무가 숲을 이룰 수 있는 토양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한편 이 화백은 출간을 기념해 10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영암 도기문화센터에서 '영암의 빛과 바람'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회에서는 영암의 풍경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을 그린 작품 50여 점 선보인다. (061)470-2566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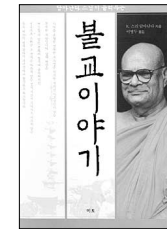
조선시대 지배층 불교의례 올렸다

유교를 국교(國敎)로 삼았던 조선 시대, 그 중에서도 종종 때는 유교적 의례가 점차 뿌리내려 생활 속의 관습(慣習)으로 토착화되는 시기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때에도 왕실이나 사대부(士大夫)에서는 여전히 불교의례가 성행했음을 알려주는 책이 출간됐다.

광주대 이희재 교수가 펴낸 <한국인의 통과의례 이야기>는 종종 때 왕실이 행한 기신재(忌辰齋)를 통해 상례(喪禮)와 제례(祭禮)에 있어 불교가 그 역할을 수행했음을 밝히고 있다. 기신재란 죽은 자의 기일(忌日) 새벽에 재를 올리는 것으로, 왕실에서는 선조의 신령으로 하여금 목욕하고 부처님 전에 예를 올리도록 한 불교식 제사를 말한다. 이 교수는 <중종실록>의 기록을 토대로 종종이 연산군 때 없어진 기신재를 복원하고 국가와 백성을 위해 기원하는 의례로 모셨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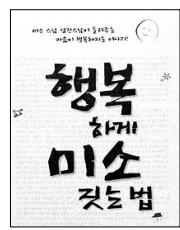
이 교수는 "조선 시대에 왕실에서 불교 의례가 행해진 것은 유교가 종교(宗敎)로서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또한 이는 불교가 가진 종교성의 생명력을 입증한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도 책에서는 우리나라의 초례와 관례와 혼례, 상례 등의 통과의례가 갖는 의미도 설명하고 있다.



한국인의 통과의례 이야기
이희재 지음
중앙문화와문화재 | 8천8백원

"무조건 웃어라 행복해진다"



행복하게 미소짓는 법
성전 스님 지음
도솔 | 9천5백원

당신이 지금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돈과 높은 지위, 큰 집과 자동차... 가진 것이 하나씩 늘수록 필요한 것은 더욱 더 많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욕심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성전 스님(조계종 기회국장)이 말하는 '행복해지는 법'은 단순하다.

"무조건 웃어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월간 <해인>과 <선우도량> 편집장을 거쳐 서정적이면서도 간결한 글을 선보여 온 성전 스님은 <행복하게 미소 짓는 법>에서 자신이 삶의 화두로 여기고 있는 '행복하게 미소 짓는 마음'을 풀어내고 있다. 스님이 말하는 '행복해지는 법'은 마음 속에 맑고 투명한 빛을 떠올리기. 그러면 육신의 무게가 사라지는 가벼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스님은 "만나는 모든 것들과 대화하라" "행복을 위한 구절 하나씩을 기억하라" "호흡을 통해 고요한 이완의 즐거움을 터득하라" "손해로 화가 날 때는 전생의 빛을 갚았다고 생각하라" 등 생

활 속에서 불꽃 지는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불교적 해법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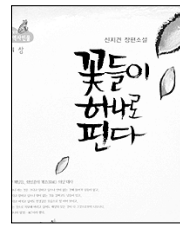
"나는 내 삶의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다. 행복이 그것이다. 내게 출가는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고 깨달음을 행복을 의미한다. 슬픔에도 고난에도 한결같이 행복하게 미소 짓는 마음을 만나는 일, 그것은 내 꿈이고 수행의 완결이기도 하다."

책은 출가한 이에게 세 가지 소중한 인연으로 꼽히는 스승과 도량, 도반에 얽힌 이야기를 중심으로 엮여져 있다. 스승이 올바른 수행자의 삶을 보여준다면 수행의 길을 함께 가는 도반은 훌륭한 길잡이이며 때로는 좋은 경책이라고 스님은 말한다. 그들과 함께 인연 맺는 도량에서 수행 전진하는 것 또한 바로 출가자의 행복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책 곳곳에 자리 잡은 풍경사진을 통해 산사의 풍광과 스님의 여유로운 마음을 느껴보는 것도 이 책을 심본 활용하는 법이다.

여수령 기자

의상대사 삶 소설로



꽃들이 하나씩 핀다
신지건 지음
조이예듀넷
9천8백원

<다비자 가는길> <벗어버린 사슬> 등의 소설이 신지건 씨가 의상대사의 삶을 그린 소설 <꽃들이 하나씩 핀다>를 펴냈다. 이 책은 도서출판 조이예듀넷이 한국소설가협회와 한국문학평론가협회 추천을 받아 펴내는 '한국문학 빛나기' 시리즈의 하나다.

신라시대의 고승인 의상 대사(625-702)는 화엄종의 개조(開祖)로, 중국 당나라에서 지엄 선사(師尊)로 화엄종을 연구했다. 670년 귀국한 스님은 경북 영주에 부석사를 창건하고 평등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화엄사상을 신라인들에게 설교하는 등 한국불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은이는 "의상 대사는 1300여년 전 '하나 속에 모두가 있고 모두 속에 하나가 있으니, 하나가 곧 모두가 있고 모두가 곧 하나'라는 가르침을 남겼다"며 "우리가 이 가르침을 이어받아 편 가르기를 그만두고 구별 없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소설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소설은 귀족가문에서 태어난 '일지'가 경주 황복사로 출가해 의상이란 법명을 받은 후 661년에 중국으로 건너가 새로운 불교사상인 화엄을 배우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또한 유학시절과 깨달음을 얻기까지 겪었던 고뇌 등을 면밀히 훑는다. 꼼꼼한 고증을 통해 당대의 풍습을 또렷하게 살려내 읽는 맛을 더한다.

여수령 기자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책방 역시 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도법 스님	아름다운인연
2	포교사고시 예삼문제집	조계종총무원	조계종출판사
3	왜 사는가	무명 스님	열림원
4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	정화 스님	이른아침
5	禪 너는 누구냐	현대불교신문사	여시야문
6	저장	전 재 강	문주사
7	웅서	탈라이 라마	오래된미래
8	출로 사는 즐거움	법정 스님	샘터
9	선방 가는 길	정찬주	열림원
10	중론 논리로부터의 해탈...	김성철	불교시대사

도서 안내: (02)737-0695

禪으로 깨우치는 반야심경

역경의 제등을 통해 깨우치는 이 시대의 아부 선사! 대원 문재현 선사(전강 선사단 인가계좌)의 감로법문 바로보인 반야심경으로 책도 출간되었습니다. 일시: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12시

www.zenparadise.com
☎ 02-522-0122, 011-785-0122

연락바랍니다

- 승려가 되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
- 승려가 되고자 하나 불우한 청소년기로 인하여 중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한 분.
- 이미 삭발은 하였으나 조계종 승려가 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분께 학비 일체와 승려가 되는데 필요한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연락바랍니다.

조계종 승려(비구니)가 되고자 하는 행자도 모집합니다

연락처 02-932-1412 / 934-2230 (팩스경용)

청화 법조 합장

대승불교 사상 대강연회

주제: 정역(正易)과 대승사상 (후천사상의 불교적 이해)

● 내용 : 가) 정역의 핵심사상
나) 대승불교의 본질
다) 법신사상과 후천사상의 관계
라) 일승신앙의 의미
마) 주역에서 본 정토신앙

● 대상 : 스님 및 신도

● 일시 : 2004년 11월 13일(음 10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

● 강사 : 대승불교대학 학장 원통

대구대승불교대학 부설 법음·법패 의식교육원·정토사

문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914-5 (월촌역4거리) 전화 : (053)622-0333 / 011-699-9120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에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않습니다)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승복법복 판매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울세탁) 적삼, 바지 150,000 ~ 180,000 동방바지 190,000 ~ 21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2. 무명(역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조끼 60,000 두루막 170,000
3. 면 솜이 누비(한국산 솜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10,000 조끼 60,000 두루막 160,000
4. 면 목화솜 누비(역물 염색) 적삼, 바지 210,000 동방, 바지 250,000 조끼 70,000 두루막 200,000
5. 모직 특수솜 누비(울세탁) 적삼, 바지 240,000 동방, 바지 290,000 조끼 80,000 두루막 230,000
6. 장삼 고급모직 220,000 제일모직 250,000 실크·금남 준비되어 있습니다.
7. 가사 대가사 150,000 ~ 200,000 반가사 70,000 ~ 100,000

■ 기타 : 스님 차이나 남방, 니트, 니트모자, 마후라, 기방, 신도용 조끼, 바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주차장 내)